



약진 · 도약으로의 1987년

—健協 · 寄協 통합

1주년을 돌아본다.

會長 徐 丙 高

1986년 11월3일, 건협이 기협을 발전적으로 흡수 통합한 이래 어인 이번 11월달로 통합 1주년을 맞이한다.

82년 4월에 발족한 한국건강관리협회는 86년 기협을 흡수 통합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위한 새로운 단계로의 전환과 도약을 단행하였고 기협 또한 20여년간의 많은 업적을 남기고 건강관리협회로 통합된 이래 더욱 능률적인 기생충관리사업을 전개하였음도 높이 평가해야 하겠다.

통합 1주년을 맞아 회고하건데 비전염성 만성질환의 조기발견사업과 기생충구제사업 등 국민건강에 기여한 공로는 실로 획기적인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좋은 성과를 올리게 된 이면에는 기협이 모체가 되어 기술과 인력, 시설, 장비 등 소중한 경험이 토대로 되었던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건협, 기협이 통합한 후, 지난 1년간은 건강관리사업을 위한 실질적인 원년(元年)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변혁기였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볼 때, 건협은 한해동안 실질적인 관리체계화와 더 나아가 국민복지증진에 기여한다는 신념으로 사업발전에 더욱 적극적으로 주력해 왔다.

오늘 날 우리들은 문화생활의 발전과 더불어 선진국형 질병형태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각종 비전염성 만성질환이라던가 간염, 암, AIDS등이 현대병으로 부각되기 시작했고 이들 질병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국민 개개인의 건강생활을 좀 먹는것도 사실이다.

이제 우리는 한걸음 더 나아가 성인들의 병만을 예방할것이 아니라 유아기때부터의 건강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시기에 도달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내년도부터는 영아(嬰兒)들의 선천성대사질환(先天性代謝疾患: 예: PKU검사)검사도 구상하고 있다.

즉 어릴때부터의 예방관리가 필수 요건이라고 말 할 수 있겠다.

87년도를 회고해 볼 때, 특히 만성퇴행성질환의 검사사업은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양하여 10월말 현재 총 170여만명을 종합검사하였으며 자궁암검사, 고혈압검사, 심장기능검사, 당뇨병검사, 신장기능검사, 간장기능검사, 빈혈검사, 간염검사, 혈액형검사, 호흡기능검사, X-선 촬영검사, 성병검사, 기타 등을 검사하여 조기발견·조기치료를 유도하였음은 실로 자부할만 하다 하겠으며 또 한편으로는 일반 기생충검사사업도 학생기생충 검사 총인원인 12만여명과 더불어 총인원수 1천6백만여명을 검사하여 실로 막대한 인원을 검사함으로써 과거부터 내려온 저력을 과시했다고 여겨진다.

중요사업 추진사례로서는 농협중앙회에서 직원들의 환원사업으로 추진된 간장질환 검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하여 총12만명을 검사하였고 다음으로 한국해원의료보험조합원과 전국선원가족들에 대한 성인병 조기발견 및 예방을 위한 건강검사를 추진하여요, 간염, 간기능, 혈당, 신장기능, X-선검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서울시지부의 저소득층 자궁암 검사추진과 위촬영검사, 대구시지부의 청소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사 사업, 전북지부의 자활보호대상자를 위한 도정사업, 전남지부의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한 건강검사 5개년도정사업, 경북지부의 도내 농어촌 40~50세 부녀자 성인병 5개년 건강검사 도정사업, 제주지부의 도내 초중고등학생들의 혈액, 요검사사업등이 더욱 검사사업 활성화의 중추적 역할을 했다.

기타 88년도 사업계획중 정부에서 직장및 직종의료보험조합 예산편성지침내용에 각조합 적립금 정도에 따라 일정비를 범위내에서 건강검진사업을 실시토록함으로써 각시도지부의 검사사업 활성화에 박차를 더하게 된것은 실로 큰 수확이라 하겠다.

또한 공무원및 사립학교 교직원 건강진단검진 요양기관지정으로 사업에 활성화를 기했으며 특히 정도관리사업에서 VIS치 100이하로 최우수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것은 자랑할만하다고 말하고 싶다.

끝으로 특수업태부를 위한 성병검진을 위한 사업개발과 공중보건의 배치등은 앞으로 있을 88올림픽등 국제화시대를 대비한 획기적인 검사사업이라 하겠다.

그리고 정부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대처한것등은 참으로 잘된 일들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각시도지부 청사의 증축 내지는 구입이다. 즉 지금까지 전세로 들어있던 인천지부 송의동 청사를 완전히 구입하여 대도시 지부로서의 면모를 일신했으며 전남지부, 전북지부, 부산지부 등은 청사증축을 단행하여 검사사업 활성화 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88년 戊辰年에는 올해보다 더욱 더 힘찬 발걸음을 내딛어 각종사업에 활성화를 가하기를 이 지면을 빌어 다시한번 다짐해 본다.

〈필자=한국건강관리협회장·인하대학교 의과대학장·의박〉